책머리에 _ 연해주 이주 150주년, 평양에 간 고려인의 슬픈 이야기 · 5

제1장 소련군정의 '손과 발' 카레이스키 군단 · 13

스탈린의 카레이스키 긴급 동원령 13 | 북한에서 해방 맞이한 첩보 공작원들 17 | 소련군과 함께 '조선해방전쟁' 참전 19 | 소련군과 함께 온 제1진 '글 박사들' 26 | 전쟁 이전 징집된 제2진 엘리트들 29 | '김일성 부대'와 함께 온 제3진 '군인들' 36 | 제4, 5진, 공산주의 이론가와 파워 엘리트들 38 | 제6, 7, 8진 테크노크라트들 46 | 그리던 '조국' 평양으로 가는 길 50

제2장 카레이스키 디아스포라의 슬픈 역사 · 59

카레이스키는 누구? 59 | 한인의 독립운동과 빨치산 운동의 터전, 연해주 64 | 스탈린 폭력정치에 희생된 고려인들 76 | 일본 간첩 누명 쓴 카레이스키 혁명가들 77 | 절대 비밀 '카레이스키 노예 지침' 80 | 눈물 젖은 중앙아시아 강제이주 84

제3장 소련군정과 북한 주민의 가교 · 89

소련군 지도부의 '귀와 입' 89 | 함흥학생운동과 조만식 매장 시나리오 92 | 북한 맞춤형 경제정책 수립 97 | 북한 주민의 '불만 해결사' 99

제4장 소비에트화와 '김일성 정권' 터 닦은 정치일꾼들 · 102

김일성 정권 탄생 산파역 102 | 기관지 발행해 소련식 공산주의 소개 103 | '김일성 장군' 신문 · 방송 특집 제작 105 | '당 기술자들' 북조선노동당 창당 주도 108 | 소련인 고문들의 '손과 발' 113 | 북한 정권의 당 · 정 · 군 2인자 119 | 지상 좌담, '스탈린은 왜 김일성을 선택했는가' 127

제5장 소련파와 6 · 25전쟁 · 138

소련파 간부들의 6 · 25전쟁 증언 138 | 카레이스키 간부들, 6 · 25 남침 계획 관여 142 | 소련파가 전쟁 무기 태스크포스 주도 143 | 당 선전부장, 전쟁 3일 전 '특별방송 준비' 146 | 전쟁 두 달 전, 중국군 38선 배치 152 | 박헌영과 유성철, 중국군 지원 요청하러 베이징행 155

제6장 소련파 '총수' 허가이 죽음의 숨은 진실 · 158

허가이는 누구인가? 158 | 자살인가, 타살인가? 163 | 북한 역사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? 170

제7장 소련파 간부 '5인조 숙청사건' · 179

소련파 숙청의 첫 단추 179 | 북한 역사의 기록 194 | 평양에 불어닥친 스탈린 개인 숭배 비판 199

제8장 소련파 숙청의 분수령 '8월 종파사건' · 205

'8월 종파사건'의 재조명 205 | 북한 역사의 기록 216 | '8월 종파사건' 주동자에 대한 '복당 연출' 219 | 숙청 그물에 걸린 당 · 정 · 군 간부 300여 명 220

제9장 평양에 간 카레이스키 엘리트들의 슬픈 역사 · 224

하루아침에 '반당종파분자'로 몰린 고려인들 224 | 소련파 숙청의 그물, '밀수입 사건'과 '콩기름 사건' 248 | 내무기관의 정보원 '호랑 할멈'과 '넝마주이 사건' 250 | 소련으로 못 돌아간 엘리트 간부 47명 251 | 남봉식 전 조선중앙방송위원장의 사상검토 253 | 강상호 전 내무성 제1부상의 사상검토 263

제10장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 · 274

소련의 박헌영 구출작전 ① 274 | 소련의 박헌영 구출작전 ② 276 | 운명을 바꾼 옌안파와 남로당파의 '패싸움' 277 | 소련파 장교의 '서울 해방' 첫 방송 280 | 소련대사 초청 연회장서 싸운 김일성과 박헌영 280 | 여수 · 순천사건 때 강동정치학원생 180명 급파 282 | 서울 주재 소련총영사관 도서관장이 본 '8 · 15 해방 서울' 283 | 김일성과 박헌영은 영원한 정적 287

부록1 _ 북한에서 일한 카레이스키 엘리트 명단 · 292

부록2 _ 소비에트 연표 · 300

부록3 _ 북한사 연표 · 301

참고문헌 · 309